

<論 說>

當面하는 물危機와 治水課題

崔 榮 博*

1. 물싸움의 昔今

“물싸움”이라는 말에서 느끼는 이미지는 지난날 農民들 사이에 我田引水를 위한 논물의 爭奪戰에서 殺人까지 서슴지 않은 悽慘한 樣狀을 우리는 想起할 수 있다.

우리나라 農業의 大宗인 벼農事는 湛水栽培인 작담에 過去의 實際利水の 殆半이 農業用水로서 오늘날과 같이 技術이 發展되지 못한 時代에 있어서 “물싸움”의 大部分이 차지하였을 것이다. 이와같은 물싸움에 대한 記錄을 確認한 바는 없지만 이 싸움은 같은 地域의 農民들 사이에서 오랜歲月사이에 自然스럽게 한 慣習化되어 結局은 談合되어 地域의 水利體系가 形成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와같이해서 이루어진 水利體系는 農民이 自己들의 勞動의 場이고 生活의 場인 土地와 물에 對한 主張과 和解로서 相互納得하여 成事시킨 體系로 여기에는 물과 함께 生存·生活코져하는 意志가 살려져 있었다. 하지만 近者에 와서 工業化와 함께 都市化의 물결은 이 體系에 變革을 두고 있다. 即 流域周邊 上中流의 宅地化 工業立地化로 生活用水나 排水에 있어서 水量은 減少하고 水質은 惡化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取水確保에 問題點이 介在하기 시작하였다. 即 都市化는 用水河川, 排水河川등의 區分이나 水利體系를 事情없이 마구 崩壞시키고 있어서 물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기에 물은 공짜, 따라서 浪費思想의 代名詞처럼 취급하여왔는데 只今은 이것도 낡은 歌詞가 되고 말았다. 近者에 와서는 물과함께 生活하는 사람의 姿勢는 없고 水利權, 莫大한 投資에 의하여 集水되고 取水되고 淨水됨으로서 물을 賣買하는 物質觀이 確立되고 있다. 사람과 물의 一體觀은 크게 바꾸어졌고 數100年을 통해 이루어진 사람과 물의 關係와 數年間에 擴大된 物質觀의 相違는 現代의 물危機, 물싸움을 對異質的이고 複雜한 것으로 하고 있다.

한때 先進諸國에 있어서 물의 消費量은 文明의 바로미터로 되었고 따라서 물使用의 過多가 歡迎되었다. 그러나 經濟成長과 함께 사람들은 都市로 密集하여 山林과 玉畜을 伐開하고 溜池를 매워서 空地化하고 河川을 覆蓋하여 下水路로 하고 自家에 沐浴場을 가지고 水洗式便所로 하고 大小建物에는 浴房을 하였다. 이때 成立한 水道法도 豊富하고 淸澄한 물을 低廉하게 供給하는 것을 義務化하고 工場은 河川水를 遠距離로 廣域利水해서 工業用水道를 開設하였다. 都市市民은 물은 爲政者가 먼 上流流域에서 送水해주는 것, 水道管을 통해서 買水하는 것이고 下水路를 통해서 流去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큰댐에 의하여 河川水流出의 年中平準化에 의하여 渴水補給을 하기 위하여 豊水時에 取水하는 水利權까지 設定해서 물消費의 增大에 對備하고 있다. 이 水利權은 渴水時에 取水할 수 없는 물인데도 不拘하고 一年中 必要한 生活用水나 工業用水로 사용해서 取水할 수 없는 時期가 있음을 忘却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서 河川물은 豊水期나 渴水期에 관계없이 모두 大形管으로 導水되어 都市内部로 그 모습을 숨기게 되었다. 이와같이 都市에서의 물숨기기에 큰 陷穽이 있었다. 渴水增強에 의하여 大都市가 肥大하고 繁榮하고 있는 것은 人爲的인 流量調整의 결과로서 이때에 流域은 河川의 自然流量을 훨씬 超過하는 人口나 産業을 가지고 있는데 對하여 눈치차리지 못하였다.

人爲는 무엇이라하여도 自然의 힘에는 未及하다. 自然의 힘이 人爲를 超過할때 어떻게 될 것인가? 渴水나 給水制限일때 上流댐의 水位에만 關心을 가지는 것은 그 危機를 똑똑히 보기 위함이다. 流域의 人口나 産業이 河川의 自然流量으로서 갈치터되는 限界를 초과하면 초과할 수록 그 물의 危機는 크게된다. 그 危機를 더욱 增大시킨다.

第2次國土開發計劃案(82~91年)에 의하면 1982년부터 10年後인 91년까지 忠州, 陝川, 住岩, 臨溪, 洪川,

*學會顧問 國土建設綜合計劃審議委員, 水原大學學長(理博)

臨河, 咸陽, 明川, 洛東江 및 錦江河口堰等 10個多目的의댐을 建設하여 新規로 年間 75億톤의 用水를 開發코자 한다. 하지만 計劃대로 完成될는지 許多한 問題點이 介在하고 있다.

2. 治水와 綜合水管理

물과 人間生活의 관계는 利水와 治水로 大別된다. 治水面에서도 사람과 물의 聯關을 度外視하면 社會가 破壞된다. 治水を 無視한 流域의 土地開發이 治水機能을 低下시켜 集中豪雨時 山沙汰나 內水侵水등의 큰 爭點을 生起시키고 있다.

河川의 改修에는 莫大한 費用과 오랜 歲月을 必要로 한다. 우리나라 河川改修은 80年 現在 겨우 31%의 進陞率로서 百年水清格이다. 그런데 流域의 土地開發은 近者 猛烈한 速度로 伸張하고 특히 都市周邊에서 野山을 벌거벗게 하는 宅地開發이 進行하고 있다. 이 까닭에 保水機能이 低下해서 河川의 洪水피이크를 높이는 結果가 되었다.

이때까지 오랜 經驗이나 觀測에서 上流의 保水機能(山林造成등 治山)과 함께 中, 下流의 治水工事が 實施되어 安住의 地를 유지하여왔다. 하지만 洪水피이크가 높아짐에 따라 이 벨런스는 崩壞되어 從來 侵水되지 않던 地區까지 侵水하게 되고 여기에 새로 建築을 하는 사람은 盛土로서 洪水의 防衛를 疎한다. 이렇게 되면 以前의 居住地는 盛土로 排除된 分만큼 浸水가 심하게 되는 環惡循이 되풀이 된다. 河川을 擴幅하고자 하지만 建物密集으로 餘餘가 없다. 그래서 都市 河川의 새로운 水害는 每年 甚하게 되어 水害訴訟을 할

霧圍氣마저 助成하고 있다.

河川改修計劃을 樹立할 때 50년에 1回, 100년에 1回의 洪水를 防止하도록 設定하였는데 上流가 開發된 까닭에 10년에 1回, 20년에 1回 生起의 洪水에 耐久할 수 없는 狀態로 된 것 같다. 따라서 直轄河川의 改修가 29%밖에 되지 못하는 오늘날의 全國의 土地開發에 수반하는 洪水對策을 河道內만으로 處理하는 것은 不可能하며 土地開發 그 自身을 治水上觀點에서 規制를 加하지 않으면 뒤쫓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現在 土地의 利用에 對하여 各種法規로서 規制하고 있어서 治水面에서의 考慮하는 體制는 없다.

따라서 法制的인 整備는 勿論이지만, 現法制中에서도 될 수 있는 土地利用의 誘導등, 流域의 土地狀態까지 고려한 暫定目標의 綜合治水對策이 必要한 것 같다.

土地와 물은 옛부터 一體의 것이니 이것이 近者의 開發에서 分離되어 물은 考慮밖으로 되고 土地만 顯著하게 變貌하였다. 土地와 물과 사람이 一體가 되어 生活하고 일컫는 思想은 사라지고 都市의 物습기기가 市民과 물의 聯關을 物質觀으로 바꾸어 놓았다. 동시에 이것은 土地와 물을 잘라 버려서 생각하는것을 사람들에게 심었다.

앞으로 河川, 댐의 上, 下流의 對立, 물의 爭奪, 土地의 爭奪을 誘發할 念慮도 少하고 있다.

一定한 河川水에 依存하여 삶을 이어온 流域住民自身들이 流域單位로 스스로 만들어진 利水와 保全의 길을 決定하도록 새로운 綜合水管理의 組織이 必要하다. 여기에는 土地와 물과 사람의 一體의關係의 思想을 復權시키는 것이 첫째이다.

<p. 27에서 계속>

先生의 體力의 장인성은 이문 증명해준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테니스를 2~3時間씩 한다니 젊은 사람들도 감히 해내기 힘들 程度의 運動量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game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에 게 지지 않는다니 과연 水準級이다. 또한 近日에는 요가로 心身을 단련하고 있다니 그 꾸준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없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혈기가 더 왕성하여진 것이 틀림없다. 참말로 반가운 일

이다.

先生은 슬하에 3男 1女로 長男과 次男은 모두 치과 의사로서 名聲을 떨치고 있는 의사집안이거니와 한 多福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막내위로는 모두 成蹊시키고 長男과 막내아드님과 함께 先生任 內外분은 西大門區 延禧洞에서 단란한 生活을 하고 계시다. 先生任의 家庭과 앞날에 幸運이길들기를 빌며 先生任이 하시는 일익에 무궁한 發展이 있기를 비는 바이다.